

“학교 안간다고 학업 포기한 건 아냐” 수능 보는 학교 밖 청소년들 부푼 꿈

교육부 주관 모의고사 못 보고
진로상담 기회 부족에도 열광
광주 5개 구 센터 120여명 응시
대학 생활 기대감 속 꿈 키워

“학교에 가지 않을 뿐 공부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14일)을 하루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13일 오후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 센터 소속 학생 4~5명이 교실에서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었다.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보기도 했고, 오답노트를 보며 취약한 과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백지혜(18)양은 “얼마 전까지는 긴장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다”며 웃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학교 재학생들과 달리 교육부가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치를 수 없고, 진로 상담 기회도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대신 센터가 운영하는 학습반과 멘토링을 통해 수능 준비를 했다는 백양은 “고1 때 자퇴를 하다보니 처음엔 어떤 것부터 공부할지 몰랐다”며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학원이나 인강(인터넷 강) 없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양은 “대학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한 후 상담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때 센터 상담선생님이 가장 큰 힘을 주셨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센터에 소속된 12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 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136명(광주 742명·전남 394명)이 검정고시 등을 치른 후 수능에 응시했다.



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백지혜양이 틀렸던 모의고사 문제들을 복습하며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다.

광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조사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업 중단 학생은 2022년 1105명(0.6%), 2023년 1409명(0.8%), 2024년 1623명(1.0%)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혹은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불리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학교에 가지 않을 뿐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수능을 앞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재학생들과 달리 뒤든 스스로, 혼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능 이후 대학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과 대한 기대감을 비추기도 했다.

양모(18·북구 운암동)양은 “스스로 공부계획을 짜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집에서 공부했다. 스마트폰 등 집에 유혹거리가 많아 공부에 방해될 때가 많았고, 스스로 잔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많이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같이 응원해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공유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다”고 털어놨다.

문학을 좋아해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양양은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흥미가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

덧붙였다.

작가가 꿈인 이모(18·북구 문흥동)양 역시 “학교 밖에 있다보니 친구들을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센터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면서 위안을 얻었다”며 “대학에서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유학도 가고 싶다”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모(18·동구 산수동)양은 “행정학과에 지원했는데, 대학 진학 후에는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도 공부할 계획”이라며 “힘든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 전문 사회복지사가 꿈이라는 원모(18·북구 문흥동)양 역시 “센터에서 수능 대비반 강의를 들으며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실력이 늘었다”며 “학대와 차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구센터 한 칸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수능 키트’가 가득 쌓여있었다. 서구센터는 올해 수능을 치르는 센터 학생 22명에게 주의 사항이 적힌 종이와 캔커피, 초콜릿, 담요 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교사가 자기 아이 학대한다며 같은 학교 담임 고소 전남교사노조 “보복성 의심”...교육청에 대책 촉구

고소한 교사 “아이 보호 위한 조치”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담임이자 동료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최근 A교사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다며 같은 학교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담임인 B교사가 학폭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 유기, 방임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사노조(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 겸 교사 A씨가 자녀의 담임이자 같은 학교 동료인 B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을 반복하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됐음에도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며 “보복성 신고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A씨는 같은 학교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약속 없이 교실을 자주 방문해 B교사에게 상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B교사가 즉각 답변하지 않자 ‘담임교사를 1년 내내 맡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신문고에 제

보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보위는 지난 10월 A교사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며 ‘2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교사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사노조는 “A교사의 보복성 대응으로 B교사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은 물론, 해당 초등학교는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남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료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육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교사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폭언이나 욕설은 전혀 없었고 보호자로서 정당한 의견 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없는 교보위가 B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오히려 (내가) 다른 교사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황이라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광주·전남 농민 단체가 13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 앞에서 ‘광주·전남 농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쌀값 안정화와 쌀 수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회 제공)

‘음주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 유튜브 영장 기각

자신이 추적하던 음주 의심 운전자가 사망해 사적 제재 논란을 부른 유튜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브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행 등과 함께 운전자 B씨를 쫓아가 음주운전 사실이 맞는지 묻으며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B씨는 A씨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또 지난 8월 또 다른 일행 등과 함께 음주 의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속박업소 주차장에

들어가 쫓아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둑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후 C씨의 주행을 가로막았지만, C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고, 구속을 할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사적제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월 선고

음주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